

## 간몬 터널 인도

규슈에서 혼슈까지, 또는 혼슈에서 규슈까지 걸어서 건넜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규슈와 혼슈는 간몬 해협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가장 좁은 곳도 0.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슈와 혼슈 사이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해저 더 아래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몬 터널은 1958년 3월 9일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다닐 수 있는 터널로 개통했습니다. 처음에는 터널 상단부는 1차선 차도였고, 하단부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이었습니다. 터널은 전체 길이 780m로 시모노세키 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이 55m까지 내려가고, 모지 쪽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이 60m까지 내려간 뒤 통행합니다. 걸어서 갈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나 스쿠터를 밀며 통행할 경우에는 20엔의 요금이 듭니다.

걸어서 갈 경우에는 끝에서 끝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터널의 한가운데쯤에는 야마구치현과 후쿠오카현의 현 경계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포토 스폿이기도 하므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희귀한 해저 현 경계에 걸쳐 서서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터널은 비와 바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냉방 완비 코스로 걷기와 조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습니다.